

일진, 심임수 삼성SDI 부사장 영입

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... 디스플레이 사업부문 강화 기대

일진디스플레이는 심임수 전 삼성SDI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.

심임수 대표이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, 1979년 삼성전관(현 삼성SDI)에 입사한 후 LCD사업팀장(상무), MD사업부장(전무), PDP사업부장(부사장) 등을 지낸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 경영인이다.

일진디스플레이는 2008년 8월 터치스크린 전문 생산기업인 에이터치를 합병한 후 12월 강화유리를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얇은 터치윈도를 개발하는 등 터치스크린 사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09>